

회복, 그리고 성령의 새 바람

"내 백성들아
내가 너희 무덤을 열고
너희로 거기에서 나오게
한즉 너희는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또 내 영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가 살아나게
하고 내가 또 너희를 너희
고국 땅에 두리니
나 여호와가 이 일을
말하고 이룬 줄을 너희가
알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7:13~14)

지금 현재 저희 부부는 두번째 사역기간을 마치고 10 년동안 선교지에서 보낸 시간들을 되돌아보며 다음사역을 준비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

많이 변화되어진 한국과 미국 생활 속에서 새롭게 적응하고 겪으면서, 우리가 현장에서 너무 잘 적응하고 있었나 싶기도 하고, 격변하는 삶속에서 어려움이 있었을 믿음의 동역자들의 동행이 더 가슴 찡하게 와 닿으며 주의 은혜에 감사하고 있다.

지난 십여년은 현지사람들을 이해하고 매 순간 함께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었다.

주님을 만나고, 믿음생활을 하는 우리는 늘 기쁨과 감동만 넘쳐나길 바라고 있지만, 주님은 우리가 원하는 상황들과 환경을 만들어 주시는데 엄격하고 자애로우신 것 같지 않으셔서 힘들었던 시간도 참 많았음을 고백한다.

하지만 지난 십년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살아낼 수 없었던 때로는 벅참 감동과 기쁨의 시간들이었음을 고백하며 주님의 은혜에 감사한다.

믿음의 성숙은 믿음을 고백한 것으로만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온몸으로 느끼게 해 주신 지난 시간을 감사한다.

더불어 주님의 선하신 역사하심과 그분의 공의가 무엇인가를 고민하며 하루하루를 살아냈던 시간이기도 했다.

아직도 여전히 진행중인 미숙한 우리 부부 삶의 여정을 통하여 그분의 선하심과 공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지 우리 자신도 궁금하기만 하다. 한가지 확실한 것은 어떤 상황과 환경속에서도 함께 하실 것이라는 믿음과 이길 수 있는 힘과 능력을 주실 것이라는 것이다.

이 여정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것은 그분이 주시는 길과 방법이 우리 부부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그 길을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 자신의 열정과 개인적인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여 말씀과 기도 안에 거하는 것임을 고백하며 날마다 전신 갑주로 재무장하는 것이다.

현장에서 우리가 만났던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사랑을 전하지 못해서, 또 그 때가 언제쯤 인지 가늠이 되질 않아서 늘 마음을 졸이고, 아팠던 기억이 생생하다. 그리고 한국과 미국을 방문하며 보낸 이번 기간 동안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것은 어느 곳이든 같음을 느끼며, 안타까운 현실에 가슴이 아프고 어깨가 무겁다.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를 기다리며 숨죽이고 돌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환영처럼 떠오른다.

언제쯤 나팔을 불고 목이 터지게 함성을 지를 수 있을지 가슴을 졸이며 숨을 죽이는 이 순간들이 설레임과 소망으로 가득 차길 기도한다.

황량한 땅에서 청지기로써 지켜야 할 믿음의 확신과 우리 부부를 부르신 소명의 무게를 감당할 수 있는 힘과 능력이 우리 안에 넘치길 기도한다.

험난한 고난과 어떠한 시험에도 쓰러지지 않고 이겨낼 믿음과 인내가 필요한 우리 모두에게 여리고 성이 무너질 때까지 돌고 또 돌 수 있는 체력과 인내함을 주시길 기도한다.

또한 주님의 인도하심만을 따라 그분의 선하신 역사하심을 온전히 바라며, 부여 주신 그 사랑의 무게에 감사하며, 하루하루를 그분의 은혜를 삶 속에 녹여내며, 소금과 빛이 되어 우리의 남은 인생의 페이지를 써 나갈 수 있기를 기도한다.

현지생활

저희 부부는 그 동안 위탁경영을 하던 비즈니스를 현지사정으로 인해 그만두게 되면서 비자가 만료되어 부득이 현장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현장을 떠나며 새로운 비자를 신청하였고, 비자승인서류와 입국서류를 받으면 현장복귀를 하려고 한국에 머물며 차기사역을 위해 계획하고 준비하며 기다리고 있습니다. 6 년만의 미국 방문은 후원교회와 보고싶었던 지인분들을 만날 수 있었고, 저희 부부를 위해 바쁜 시간을 내주신 배려와 격려, 그리고 사랑은 저희 부부에게 마음의 위로와 힘이 되었습니다.

한국에 나와 받은 건강검진에서는 나이를 실감하게 하듯 치료가 필요하다는 결과와 의사소견이 나왔지만, 아직은 사용 가능한 정도여서 감사하며 건강관리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안식년 기간 동안은 필요한 것들을 배우고 찾느라 분주하게 보냈는데, 이번 안식년에는 정신적으로 육체적으로 쉬고 재정비하는 시간을 갖고 주님을 찾는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더불어 펜더믹 이후에 교회와 멀어진 교우들과 예배를 함께 드리고 교회에 다시 정착할 수 있도록 돕고, 건강이 좋지 않은 지인들을 방문하며 주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함께 해주세요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희에게 충만케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로마서 15 장 13 절)

- 저희 부부의 육신의 건강회복과 영혼이 강건함으로 무장되길 ...
-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참 예배자의 삶으로 주님이 주시는 지혜와 인도하심 따라 가는 자 되길...
- 하루속히 비자승인과 입국허가서가 나와서 현장에 복귀할 수 있기를...
- 차기 사역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있는 모든 일들에 주님의 선하신 인도하심과 은혜가 함께 하시길...
- 함께 기도와 물질로 함께하는 동역자 분들과 교회들이 주님안에 강건하고 평안하도록 ...

후원안내

선교사명: 권태산/심청수

GP USA:10582 Katella Ave. Anaheim, CA 92804 USA

Tel: 714)774-9191

Email : admin@gpusa.com

GP KOREA:(05810) 서울시 송파구 새말로 8 길 17(문정동), South Korea

Tel: 02)443 - 0883

Email : info@gpkorea.com,/gpkorea@gmail.com

Fax : 02)443-0449

